

스웨덴

평범하지 않은 나라





순록을 기르며 사는 사미족도
기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순록 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드론을 이용하면 순록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자연도
보호할 수 있다.

Photo: Per Lundström

스웨덴

평범하지 않은 나라

목차

스웨덴- 주요 정보	4
스웨덴 - 남쪽에서 북쪽까지	6
사회: 공공과 민간이 서로 함께하는 모델	8
지속가능성: 더 푸른 미래를 위해	14
정부: 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된 나라	24
평등: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	28
문화: 넘치는 창의성	36
역사: 현재의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48
사미족: 스웨덴 원주민	52
지리: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곳	58
스포츠: 스웨덴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66
전통: 연례 기념일	72
음식: 식탁 위 대표 먹거리	82
언어: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나라	90
스웨덴 혁신 연대표	92

안녕하세요!

나는 스웨덴입니다. 위아래로 아주 길어서 남쪽 끝에서 꽃이 활짝 필 때 북부 지역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도 아주 낮아 큰 도시 하나에 전 국민이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체구에 비해 힘이 세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분야와 음악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세계적인 회사도 많이 탄생시켰거든요. 지속가능성과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날아오르고, 기업들이 번창하는 곳입니다. 군주제와 민주주의, 노동조합과 유니콘 기업,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백야와 시나몬 번, 북극광과 노벨상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웨덴 하면 떠올리는 모습도 나의 모습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 스웨덴의 모습, 지금부터 직접 그려보세요.

스웨덴 - 주요 정보

위치



북유럽

수도:

스톡홀름

시간대:

그리니치 표준시(GMT) +1,
또는 중앙유럽 표준시(CET).

인구

10.5

1천 5십만 명
세계 인구의 0.14%.

87%

스웨덴 도시인구 비율

인구 밀도

25

명

제곱킬로미터 당 인구 수.
유럽연합 평균은 100명
이상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 국토의 97%를
차지한다.

*1 km² = 0.39 mi²

기대 수명



여성
84세



남성
81세

정부 형태



의회 민주주의와
입헌 군주제.

통화



스웨덴 코로나, SEK*

1인당 국민총생산:
488,000 크로나 (2019)

* 1스웨덴코로나=130.59원
(2020년 12월 환율기준)

언어



스웨덴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한다. 다음의 5개 소수민족
언어 또한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다: 핀란드어,
메앵키엘리어, 롬어, 사미어,
이디쉬어.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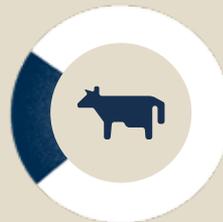
스웨덴 교회는 개신교이지만,
실제 스웨덴은 상당히
세속화되었다.

비즈니스 분야

스웨덴 경제는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다.
비율은 분야별 기업 수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기타: 0.5%):



서비스: 6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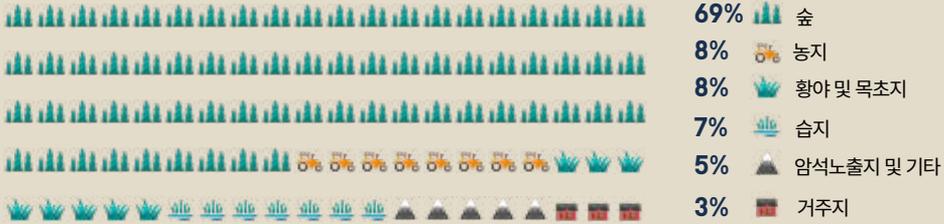


농업·임업·어업: 21.1%



공업: 14%

스웨덴 토지 이용 현황



자리

410,000 km²

에 달하는 총 육지 면적을 가진 스웨덴은 유럽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이다.

스웨덴을 북아메리카 위에 겹치면 북쪽의 토론토에서 시작해 남쪽의 플로리다 탬파까지 닿는다.

남북 최장 거리

1,572 km

수면적

육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호수·바다 등의 수면적은 120,000 km²이다.



가장 큰 호수

베네른면적 5,650 km²

가장 높은 산

케브네카이세

높이 2,097 m

일조 시간



평균 기온



*°C = 섭씨. -20°C = -4°F | 0°C = 32°F | +20°C = +68°F

스웨덴 - 남쪽에서 북쪽까지

4. 예테보리는 스웨덴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다. 스웨덴 서부의 항구 도시이자 볼보의 고향이다. 연구 집중 도시로서 통상과 산업, 학계와 공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린드홀멘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1. 말뫼는 스웨덴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유럽 대륙으로 연결된다. 과거 공업 지역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건축 및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터닝 토르소는 말뫼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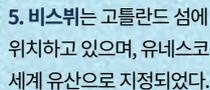


2. 룬드 대학은 1666년에 설립되었다. 이데온 사이언스 파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성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럽파쇄중성자원(ESS)이 위치해 있다.



3. 엘름홀트는 1943년에 세계적인 가구 회사 이케아가 탄생한 곳이다.

5. 비스뷔는 고틀란드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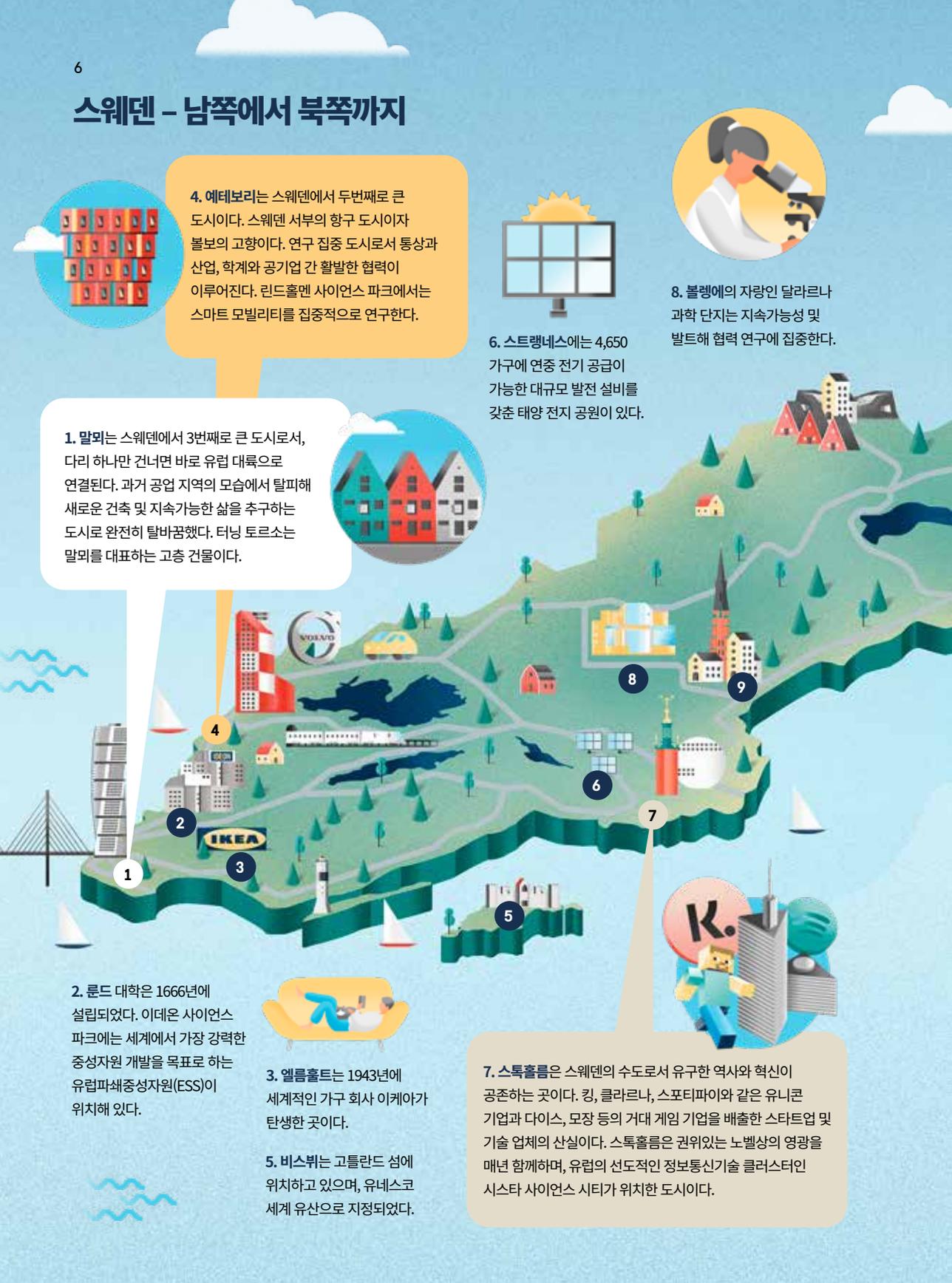
6. 스트랭네스에는 4,650 가구에 연중 전기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발전 설비를 갖춘 태양 전기 공원이 있다.



8. 볼링에의 자람인 달라르나 과학 단지는 지속가능성 및 발트해 협력 연구에 집중한다.



7.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곳이다. 킹, 클라르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유니콘 기업과 다이스, 모장 등의 거대 게임 기업을 배출한 스타트업 및 기술 업체의 산실이다. 스톡홀름은 권위있는 노벨상의 영광을 매년 함께하며, 유럽의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위치한 도시이다.





10. 외스테르순드의 미드 스웨덴 대학교와 인근의 오래 스키 리조트는 학생과 연구자를 끌어들이다.



14. 아르비드스야우르 겨울이 되면 혹한 조건에서 자동차 성능을 시험하려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천 대의 자동차와 함께 이 곳을 찾는다.

17. 키루나는 우주 연구 및 우주 관광 개척의 중심지로서 에스랑예 우주센터와 스페이스포트 스웨덴이 위치한 곳이다.



11. 하이코스트는 스웨덴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다.

13. 피테오는 풍력발전단지 마르크뷔덴을 통해 유럽 최대 육상 풍력 발전 단지 소재지로의 도약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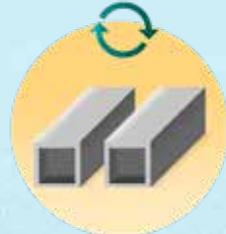
16. 옐리바레에 있는 스웨덴 최대 구리 광산 아이티크에서는 광석 운반 트럭을 전기차로 교체하며 친환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 읍살라 대학은 1477년 개교 이래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12. 우메오 대학의 연구 주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서부터 미세조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15. 룰레오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철강 공장인 하이브리트 (Hybrit)를 건설했다.





사회

공공과 민간이 서로 함께하는 모델

스웨덴은 세금이 높고 공공 부문이 강한 나라이다.
하지만 탄탄한 역사적 기반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웨덴의 경제는 기업의 탄생과 번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내 수 시장이 작은 스웨덴은 오래 전부터 국제 무역에 의존해왔다.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대규모 기업 중에 유독 스웨덴에 뿌리를 둔 기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중 가구회사 이케아처럼 스웨덴의 색채가 확연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다.

예를 들어 ABB그룹, 아스트라제네카, 에릭슨, H&M, 샌드빅, 스카니아, 볼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 온라인 결제 회사 클라르나, 게임회사 킹과 모장 등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벤처기업)이 스웨덴에서 탄생했다.

합의에 바탕을 둔 접근 방식

스웨덴은 어떻게 광범위한 복지 시스템과 높은 평균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스웨덴은 균형 잡힌 세금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법인세도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으로 ‘스웨덴 모델’의 핵심인 중앙 임금 협상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노조와 고용인이 서로 협상하는 것을 오랜 전통으로 유지해 왔다.

수년 동안 노사 관계가 대체로 평화롭게 유지되며 스웨덴의 경제 성장 또한 탄력을 받았다. 갈등이 적다는 것은 혁신과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다른 나라에 비해 스웨덴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 혁신 지표에서 스웨덴이 상위권에 오르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영국 제약회사로 전 세계 100개 국에 진출해 있으며, 스웨덴, 영국, 미국에 전략적 연구 센터를 두고 있다.



Photo: Simon Paulin

이케아의 플랫폼 팩 가구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국 기업가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사업 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신생기업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업들이 스웨덴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유리한 정책, 규제가 적은 시장, 적당한 법인세율, 우수한 기술 인프라 등이 꼽힌다.

교육을 통한 발전

스웨덴 복지 시스템은 모두가 기여하고, 모두가 같은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이 세금으로 의료 시스템 비용 일부와 아동 교육 관련 비용 전부를 충당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한 경우에도, 국가가 운영까지 도맡아 하기 보다 공공과 민간 제공자를 아우르는 답을 찾는다. 학교 교육을 예로 들면, 스웨덴에는 자율형 공립학교인 *프리스콜라*가 꽤 많다. 이는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이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교육과정은 같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아주 드물다.

스웨덴은 1842년 이래 줄곧 의무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스웨덴이 선진 복지 사회로 발돋움하는데 학교 교육과 높은 평균 교육 수준이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 스웨덴의 아동은 6세부터 10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으며, 교육비는 세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10년 의무교육을 끝낸 대부분의 학생들은 3년제 상급학교인 *김나지움*에 진학한다. 김나지움은 영국의 식스폼 과정 또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요살라 대학은 15세기 설립 이래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4만여 명의 신입생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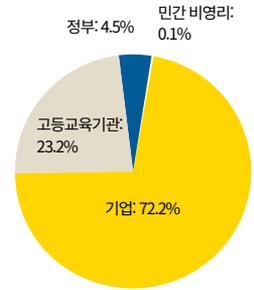
Photo: Magnus Liam Karlsson/imagebank.sweden.se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30개가 넘는 스웨덴의 대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진학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는 1477년 개교한 옘살라 대학이다. 현재 스웨덴 인구의 28%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 교육을 받았다고 집계된다.

평등한 기회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위한 하나의 주춧돌이다. 필요한 다른 하나는 접근성인데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버스와 기차에는 휠체어 탑승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건물 및 웹사이트를 특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횡단보도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했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평등한 기회 보장은 차별을 철폐하고 통합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2년과 1973년을 제외하고는 스웨덴은 항상 유입되는 사람의 수가 떠나는 사람의 수보다 많은 이민자의 나라였다. 일자리 또는 학업을 통해 더 나은 다른 삶을 찾기 위해 스웨덴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전쟁과 박해를 피해 망명한 난민들도 있다. 통합은 스웨덴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스웨덴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사회에 융화할 때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웨덴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이나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구비 지원

스웨덴은 GDP의 3~4% 정도를 연구에 투자한다.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비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나온다.

(2019년 기준)

Photo: Doreen Fiedler/TT



글로벌 딜 이니셔티브

글로벌 경제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고,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불안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는 더 건강하고 충성심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 생산성 및 사회 평등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정부, 기업, 근로자 간 사회적 대화를 목표로 글로벌 딜을 출범하였다.



접근성은 모두를 위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적 접근성은 접근성의 한 단면일 뿐이다. 스톡홀름의 열차에 설치된 눈에 잘 띄는 밝은 노란색 난간이 좋은 예이다.

20%

스웨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적정부담 보건 의료

스웨덴은 평등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지향한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의료 부문에 많은 보조금을 투입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있지만, 의료비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치과 진료는 23세까지는 무료이고 이후에는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스웨덴에서는 선진화의 결과로 국민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 돌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노인은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과 양로원도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 돌봄 비용은 대부분 지방세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분만 개인이 직접 부담한다.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에는 병가수당, 장애수당, 경제적 부담 없이 전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모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실업자를 위한 활동지원금, 65세부터 수급 가능한 최저보장연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지속가능성

더 푸른 미래를 위해

오래 전부터 스웨덴은 환경 보호를 지극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다. 드넓은 자연에 둘러싸인 나라여서 환경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도 스웨덴을 비롯한 전 세계를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스웨덴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추운 겨울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해외 여행 수요가 많다는 점도 국내외에서 스웨덴의 환경발자국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스웨덴이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것이다. 가정 난방, 산업 생산, 쓰레기 매립에 대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실천한 결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혁신, 정치적 지도력, 법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레타 툰베리 효과

스웨덴은 1967년에 세계 최초로 환경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이어 1972년에는 세계 최초 유엔 환경회의를 개최했다. 물론 일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업적들이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2018년 8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스웨덴에서 여자 아이 한 명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탄 아이는, 학교 대신 의회로 향했다.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라고 적힌 팻말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을 들고서. 이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이다.

처음에는 매일, 나중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된 툰베리의 시위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툰베리의 시위 소식은 곧 스웨덴 및 전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인도 캘커타에 이르는 세계 각 지역의 신문사에서 툰베리를 조명하는 기사가 속속 등장했다. 이듬해에는 #미래를위한금요일 운동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함성으로 진화했다.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의사 결정권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2019년 9월에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4백만 명이 참석했는데 참가자 중 많은 수가 학생이었다. 툰베리는 같은 달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당신들이 내 꿈을 훔쳤습니다.’라는 연설을 했고, 2019년 말에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기후 파업에서 대형 스크린까지. 툰베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이 엠 그레타*가 2020년 가을에 개봉됐다.


MOFFTE INTERNAZIONALE
D'ARTE CINEMATOGRAFICA
LA BIENNALE DI VENEZIA 2020
Official Selection

Official Selection
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TRIART FILM PRESENTERAR EN BR-F PRODUKTION

Greta

BR-F PRODUKTION BR-F PRODUKTION IN SAMARBEID MED BARBARA CROSSMAN OG NATHAN GROSSMAN MED CHARLOTTE ANDERLIS, HANNA LEJONHJELM SÖL OG REBEKA KARLBERG. JON SÖSTRAUT OG NATHAN GROSSMAN
ANVÄNDARE PER N. KONTASAKIS, HANNA LEJONHJELM SÖL, JONAS PETER LINDSTRÖM, PELLENISSON, IDUNA KJÆRE, PHILIP WESTERHOLM, AXEL ANNO, MANNY CHANG, CHRISTIANE HILF, HELENA RUSSELL, JUTTA KRUG,
*REGISSEUR PETER MOUSTOJ
*PRODUKTIONER FREDRIK REBERG, CECILIA BÄCKEN, COACHESERIE, JONAS PETER LINDSTRÖM, SVT, BR-CROSSVILLE, *STUDIO DOGWOOD, JONAS ÖNNEBY MEDIA
FILM OG TV UTVIKLING OG SVENSKA FILMSTUDIET, JENNY OLBERGSSON, BEHRA PRODUKTION, FILMBASEN, MIKA LALLING

BR-F hulu WDR* SWR»   svt  HELMAGEN   



Photo: Aline Lessner/Imagebank.sweden.se

에너지 공급

2017년 스웨덴 의회는 역사적인 기후 체제를 통과시켰다. 이 체제의 골자는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감축량은 우리가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 앞으로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 2012년에 이미 50% 목표를 달성했고, 이후로도 계속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추세를 이끄는 두 가지 주요 동력으로, 교통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증가와 풍력 발전량 증가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재생에너지원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과 바이오매스인데, 이는 스웨덴에 수자원과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수력은 주로 전기 생산에 쓰이고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 난방용으로 활용된다.

말뫼 서부항은 보행자 거리, 스마트 전기 그리드 등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화가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도시를 기후 스마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3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스웨덴 지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혁신적이면서 심지어 혁명적인 해결책을 내놓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 선구자로 말뚝 서부항을 들 수 있다. 쇠퇴한 산업 도시였던 말뚝은 재개발을 통해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중심 지역으로 변모했다.

2019년에 스톡홀름은 유럽연합의 프로젝트인 그로우스마터(더 스마트한 성장)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로우스마터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성장 중인 도시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일례로 스톡홀름 남부의 아스트라 지역에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소비량의 시각화, 폐열 회수, 스마트 쓰레기 수거, 화물 자전거를 포함한 공유 전기 자전거 시스템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매력적이고 영감을 주는 생활 및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폐기물 줄이기와 처리

도시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폐기를 문제이다. 간단한 해결책은, 적게 버리면 된다. 더 좋은 방법은 버릴 것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재활용 문화가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스웨덴은, 이제 순환 경제를 구현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사용하는 소위 요람에서 요람까지 접근 방식을 실천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소비 자체를 없애고, 보다 지속가능한 소재로 물건을 디자인해야 한다. 공유 경제도 퍼즐의 한 조각이다. 스웨덴에서는 점차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고 빌려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스웨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1.28kg이다. 하지만 스웨덴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중 매립지로 반입되는 비율은 1% 미만인데, 20%를 웃도는 유럽연합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스웨덴은 플라스틱, 철 등 재활용 물질을 분리 배출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저탄소 소각시설로 보내 가정 난방을 위한 열 생산에 쓰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 연료로 바꾸어 버스 연료로 사용한다.

특별한 성공 비결은 없다. 스웨덴 정부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자체, 기업, 국민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폐기물 처리 사슬에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스웨덴에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능했다.



Photo: Markus Marcetic

스웨덴 아웃도어 브랜드 피엘라벤의 리칸켄 백팩은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 만든다.

2005년 가연성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지 유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는데, 이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 및 폐기물 소각을 통한 전력 발전이 큰 탄력을 얻었다. 소비재를 더 오래 쓰고 버리기보다는 고쳐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낮춰 가벼운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리더십

보다 순환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대학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흔히 삼중나선이라고 불린다. 정부가 선두에서 인센티브와 세금으로 길을 닦으면, 대학은 혁신적인 전략과 기술로 기여하고, 기업은 이익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정착시키는 구조이다.

삼중나선 모델은 주로 과학 연구소에서 구현되는데, 이들 연구소의 대다수가 기후 중립적인 해결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 전역에서 유명한 과학 연구소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스톡홀름-웁살라, 예테보리, 말뫼-룬드 인근 지역에는 대형 클러스터들이 집중 포진해 있다. 삼중나선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해진 모델은 사중나선 협력 모델이라고 일컫는다.

2018년 이래 스웨덴 정부는 순환 경제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전담 정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정부 조달 시 일정 순환 요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안 등을 내놓았다. 또한 스웨덴 *옴스타드코미슈넨** (재출발위원회)는 2020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후 순환경제로의 경기 부양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Photo: Lindex

이 기모노는 업사이클링으로 탄생했다. 보로스 대학에서 의류 브랜드 린덱스와 리:텍스타일이 공동으로 진행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인 리:디자인 컬렉션의 일부이다.

Photo: IstockPhoto



수직 농업

스웨덴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채소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린스카'는 수직 농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허브와 채소를 재배하는 신생 푸드테크 기업이다. 수직 농업은 도시에서 작은 면적의 땅과 적은 물을 사용해 일년 내내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Photo: Lina Östling/ReTuna

스웨덴의 도시
에스킬스투나에서는
쇼핑 혁명이 진행 중이다.
세계 최초의 재활용 쇼핑몰
리투나에서는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 제품만을 판매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순환적 접근 방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많은 스웨덴 기업들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좋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다 수리하고, 재사용까지 거친 후, 마지막에는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되도록 하는 순환적 기업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형 가구 업체 이케아와 패션 브랜드 H&M은 2030년까지 자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순환 역량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에스킬스투나라는 도시에는 재활용·재사용·수선·업사이클링을 바탕으로 세워진 세계 최초 재활용 쇼핑 센터 레투나가 있어 구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다.

전통적으로 환경 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업계들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광산과 제철 생산 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광산 업체들은 스마트 마이닝을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보고 있다. 광산 기업 볼리덴은 자사의 일부 신규 광산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이브리트(HYBRIT, 수소 환원 제철 기술)는 민영 철강업체 SSAB와 국영광산회사 LKAB, 국영전력회사 바텐폴의 합작 프로젝트이다. 이 기술은 석탄 대신 수소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강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배출된다.

* 옴스타드코미슈넨, '더 강한 스웨덴을 위한 제언' 보고서

이르면 2026년 화석연료 없는 철강을 처음 시장에 내놓고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스마트 교통

스웨덴은 국토의 남북 거리가 대략 1,570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긴 나라여서 탄탄한 기반 시설과 제대로 기능하는 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오늘날 물건과 사람의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교통 수단들은 기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준다. 스웨덴은 전기 도로를 시험 운행하고,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고, 자동차자전거 풀링과 같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16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의 전기 도로의 2킬로미터 구간을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 개통했다. 2년 후엔, 시스타 과학 도시 프로젝트 ‘오토파일럿’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일반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및 5G 네트워크를 테스트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스웨덴 정보통신업체 에릭슨이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 손잡고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5G 기반 자율주행 전기 소형 버스를 시험 운행하였다.

보다 스마트한 교통은 교통수단의 공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공유란 교통수단의 임대, 하나의 앱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택시 등 이동 수단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 앱, 마을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말뫼에 위치한 세계 공원은 말뫼 시와 지역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공유 경제가 핵심이 되는 주거 지역으로 개발 중인 곳이다. 이 곳에서 사람들은 물건과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소유를 줄이면서도 접근성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Photo: E-nride

지능화 움직임

아인라이드는 준대형 트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순수 전기차를 공급하는 스웨덴 기업이다. 고객 및 교통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을 조정함으로써, 배달 시간, 배터리 수명, 에너지 소비량 등을 최적화한다는 발상이다.

최고의 건축 재료, 나무

나무로 지은 고층 건물을 본 적이 있는지? 스웨덴에서는 목재로 지은 공동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목재는 이제까지 알려진 건축 재료 중 유일하게 재생가능하다. 스웨덴은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마다 두 그루의 나무를 심기 때문에 숲 면적은 오히려 갈수록 늘어난다. 임업과 목재 건축에 대한 스웨덴의 오랜 전통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 건축가와 건축 회사로부터 미래 도시 건설 노하우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다.

스트란드파르켄, 스톡홀름 교외 주거건물.



Photo: Åke E:son Lindman



판타를 아시나요?

스웨덴은 오래 전부터 알루미늄 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면 돈을 돌려주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그냥 버려졌을 빈 병과 캔들이 매년 20억 개 이상 수거되고 있다. 빈 용기 재활용을 가리키는 판타라는 동사까지 생겨났을 정도이다. 판타, 누구든 마음껏 쓰고 또 재사용 해도 좋다.

세계 공원 프로젝트는 공유 경제 시범 사업을 개발하는 국가 프로그램인 공유 도시 스웨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도전 과제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2°C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인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 13번 목표와 일맥상통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은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2030년까지 모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민간 학계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사업, 입법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에 관한 한 전 세계적 협력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

정부

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된 나라

다른 나라들의 눈에 스웨덴이 가끔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칙에 충실한 나라로 비춰질지 모르나, 스웨덴은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스웨덴은 평등과 투명성을 기치로 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두텁다. 국민은 정부 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웨덴은 1766년에 세계 최초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스웨덴은 여전히 눈에 띄게 높은 공공 투명성을 자랑한다. 스웨덴은 언론과 일반 시민의 공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거의 예외 없이 법으로 보장한다. 공공접근권의 원칙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공공접근권 사례

공공접근권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일어난 부패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몇 년 전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공무원의 부패 사건이 발생했을때 내부 고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시 공무원들은 부패 의심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초, 이 도시에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한 부서의 책임자가 공공 조달의 규칙과 규정을 어겨 잠재적으로 시장 불공정 경쟁까지 유발했다는 내용이었다. 독립 감사 결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졌고, 정작 고발 당한 부서 책임자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지역 기자들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계약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포함한 공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밝혀냈다. 부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었다. 익명 제보자의 정체도 밝혀졌는데, 시 정부 최고위직 국장이었고 논란이 되는 계약 중 하나에 직접 서명한 장본인이었다. 해당 국장은 사임했고, 시 당국은 부패 척결과 공공 조달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Photo: iStockPhoto

스웨덴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 상관없이 고용주의 잘못을 고발한 고용인이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한다.

Photo: Mona Loose/imagebank.sweden.se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스웨덴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18세 이상 스웨덴 국민이라면 누구나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역 및 지방 정부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 또는 노르웨이의 시민의 경우 자신이 등록된 시 또는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외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Photo: Jann Lipka/Imagebank.sweden.se

이 사례는 일반인의 공문서에 대한 열람권이 공공 부문의 부정 행위를 집중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공공 부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스웨덴 민주주의 현황

스웨덴 헌법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4년마다 자유롭고 보편적이며 평등한 선거를 치른다.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의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주의회, 시의회 의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일반적인 투표율은 80~90% 내외이다.

총선으로 구성된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권은 정부에 있으나, 법 제정 및 개정권, 중앙 정부 예산 결정권, 정부 감시권은 의회가 가진다.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로, 스웨덴은 5년마다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도 참여한다. 스웨덴 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지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스웨덴 화폐 크로나(SEK)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서 촉발된 환경 시위가 열려 의회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왕세녀가 왕위에 오르면 스웨덴의 4번째 여왕이 된다.

의례적 군주제

스웨덴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자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 현 국가 원수는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이다. 국왕은 ‘스웨덴을 위하여 -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라는 자신의 모토에 따라 왕실을 운영한다. 스웨덴 헌법은 왕 또는 여왕이 의례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정치적 권한은 전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왕위계승법에 따라 왕실의 첫째 자녀인 빅토리아 왕세녀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이다. 왕실 가족 구성원들은 지속가능성, 아동의 권리와 건강 등의 중요한 안건들을 위해 헌신한다. ■

Photo: Sofia Sabel/imagebank.sweden.se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대리인’을 의미하는 스웨덴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부터 공공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공권력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분권

스웨덴 행정은 분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지방 정부가 책임을 분담한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대중교통은 대체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한편 학교, 노인 복지, 아동 보육에서부터 도로 관리, 상수도 공급 및 폐수 처리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한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크고 작은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서로 분담하여 수행한다. 스웨덴은 공공 부문의 규모가 크지만, 중앙 정부는 작은 편이고, 대신 독립적인 공공기관들이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업무가 많다.



평등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감한 정책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상에 도전하는 선구자들도 있어야 한다. 여성의 역량 강화는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먼저 보장받아야만 가능하다.





Photo: Kristin Lidell/imagebank.sveden.se



웨덴이 오랫동안 양성 평등을 지지해 온 이유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성평등 관련 초기 이정표 중 하나로 1845년에 도입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상속권을 들 수 있다. 이 조치는 여성과 남성 간 경제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보다 3년 앞서 시행된 여아와 남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 의무 교육 제도와 더불어, 양성 동등 상속권은 더 큰 진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제공했다.

정치적 선구자

1900년대 초, 스웨덴 기자 엘린 바그너는 여성 역량 강화의 롤모델로 부상했다. 35만 명으로부터 여성 투표권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1919년 여성 투표권 도입을 이끌어 낸 것이 바그너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여성이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권리로 획득했다. 1947년 카린 코크는 스웨덴 최초 여성 관료가 되었다. 1950년대는 ‘전통적인’ 성 역할의 시대였으며, 여성이 가정주부였던 시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인력 수요가 커져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동력이 절실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맡길 보육 시설이 없었다.



Photo: Wikimedia Commons

엘린 바그너(1882-1949)는 초기 여성운동가로서 1919년 스웨덴의 여성 투표권 도입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해결책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성평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에 눈부신 진전을 이루어 냈다. 모성 휴가 대신 성 중립적인 부모휴가를 도입하여 부모 모두에게 유급 휴가를 받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다시 말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스웨덴을 지켜보는 여타 국가의 반응은 놀라움 반, 우려 반이었다. 또한 오늘날의 비용 부담 없는 유아 보육 제도의 기반이 된 유치원법을 시행함으로써,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40여 년을 거슬러 올라와 현재 스웨덴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녀 한 명 당 16개월의 유급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고, 1세에서 5세 사이 아동의 80% 이상이 보육 시설에 다니며, 20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의 80%가 일을 하며 유럽연합 국가 중 최고의 여성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부모 모두 육아 휴가를 통해 아이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비율은 여전히 30%정도로 불과하다.

오늘의 스웨덴 단어:
pappaledighet - ‘아빠 휴가’,
 아빠를 위한 유급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개척한 스웨덴은, 더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부모휴가는 평등 실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휴가는 국가 성장의 향상과도 직결된다. 실제로 성평등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정책에서는 성 인지적 관점이 종종 배제되며,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스웨덴만이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의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스웨덴 #미투 운동

2017년 가을, 해시태그에 가부장제의 사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투(#MeToo) 운동은 스웨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스웨덴 미투 운동은 여배우들이 자신들의 성추행 및 성폭행 경험을 공유하며 연극·영화 업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다른 업계들도 곧 뒤를 따랐다. 이후 범위가 더욱 확산되어 다른 여성 집단,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 등 여러 다른 집단이 다양한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2018년 7월에 스웨덴에서는 성적동의를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 강화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들에게 성추행 및 성적 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과과정 내 성교육을 강화할 것을 일선 학교에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Photo: Mona Loose

Photo: iStockPhoto



세계 성 격차

성평등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상위 5위 안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가 분석한 전체 150여 개 나라를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성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100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관

평등옴부즈만(DO)은 성별, 성전환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성, 종교 또는 다른 믿음, 장애, 성 지향성 또는 나이 등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단속하는 임무를 가진 정부 기관이다.

2018년에 설립된 스웨덴성평등진흥원은 사회의 성평등 노력을 조율, 후속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Photo: iStockPhoto



스웨덴의 래퍼인 실바나 이맘은 스포티파이의 이퀄라이저 프로젝트에 참가한 음악가 중 한 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음악 업계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장기 프로그램이다.

성교육 내용에 명예, 동의, 음란물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폭력과 억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시장에서의 성평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분투하는 것은 의욕적인 개인, 단체, 정부만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도 성평등이 기업 자신, 직원, 고객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한 예이다.

스포티파이는 음악 산업에서 여성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하고, 2017년에 이퀄라이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네트워킹 행사, 커리어 톨, 팟캐스트, 워크숍 등을 통해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더 나아가 스포티파이는 자사 직원들을 위한 평등과 다양성 증진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 맥스 마틴의 XM Music 및 스웨덴음악출판사협회와 협업.

Photo: Maskot/Folior/imagebank.sweden.se



Photo: iStockPhoto

체인지메이커

비정부 기구 또한 성평등 장려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페미니스트 비정부 기구인 멘(MÄN), 분쟁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크빈나 킬 크빈나(Kvinna till Kvinna) 재단,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및 도구를 제공하는 메이크 이퀄(Make Equal) 재단이 대표적이다.

성을 넘어

여성 운동은 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규정된다는 믿음을 깨뜨리고, 이 믿음에서 파생된 성에 기반한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성 운동과 성 소수자 운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대우와 성 소수자들에 대한 대우는 근본 원인이 같다. 태어날 때 부여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적 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 역할과 성적 지향 또한 결정된다는 간소화된 개념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이다.

모든 사람이 타고난 지정 성별과 일치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시스젠더는 아니다. 특정 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사회는 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리한 것이다.

스웨덴은 모든 사람이 성 또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 이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서의 스웨덴이 이루어 낸 성평등을 향한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웨덴 남성이 스웨덴 여성에 비해 소득이 높고, 육아 휴직자도 대부분이 여성이다. 양성 간 불평등을 지탱하는 다른 사회 구조적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성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된다. ■



1913년, 바르베리에서 여성 투표권 도입을 지지하는 한 단체가 연극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스웨덴 성평등 관련 주요 이정표

1842

공교육 대상을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로 확대.

1845

여성과 남성의 동등 상속권 시행.

1921

여성 투표권 및 출마권을 인정한 첫 선거가 열림.

1938

피임 합법화.



1965

부부 강간을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 제정.

1998

여성폭력방지법 도입.

1980

여성의 왕위계승법 시행. 성평등법과 함께 평등한 기회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 설립.

1975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무상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치원법 제정. 임신 1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새로운 낙태법 제정.

1974

부모 보험제 도입으로 부모 모두에게 유급 육아 휴직 권리가 부여됨.

1971

부부 개별 소득 과세.



Photo: iStockPhoto



Photo: iStockPhoto

1999

성구매금지법 도입.

2009

평등음부즈만 설치 및 차별방지법 시행.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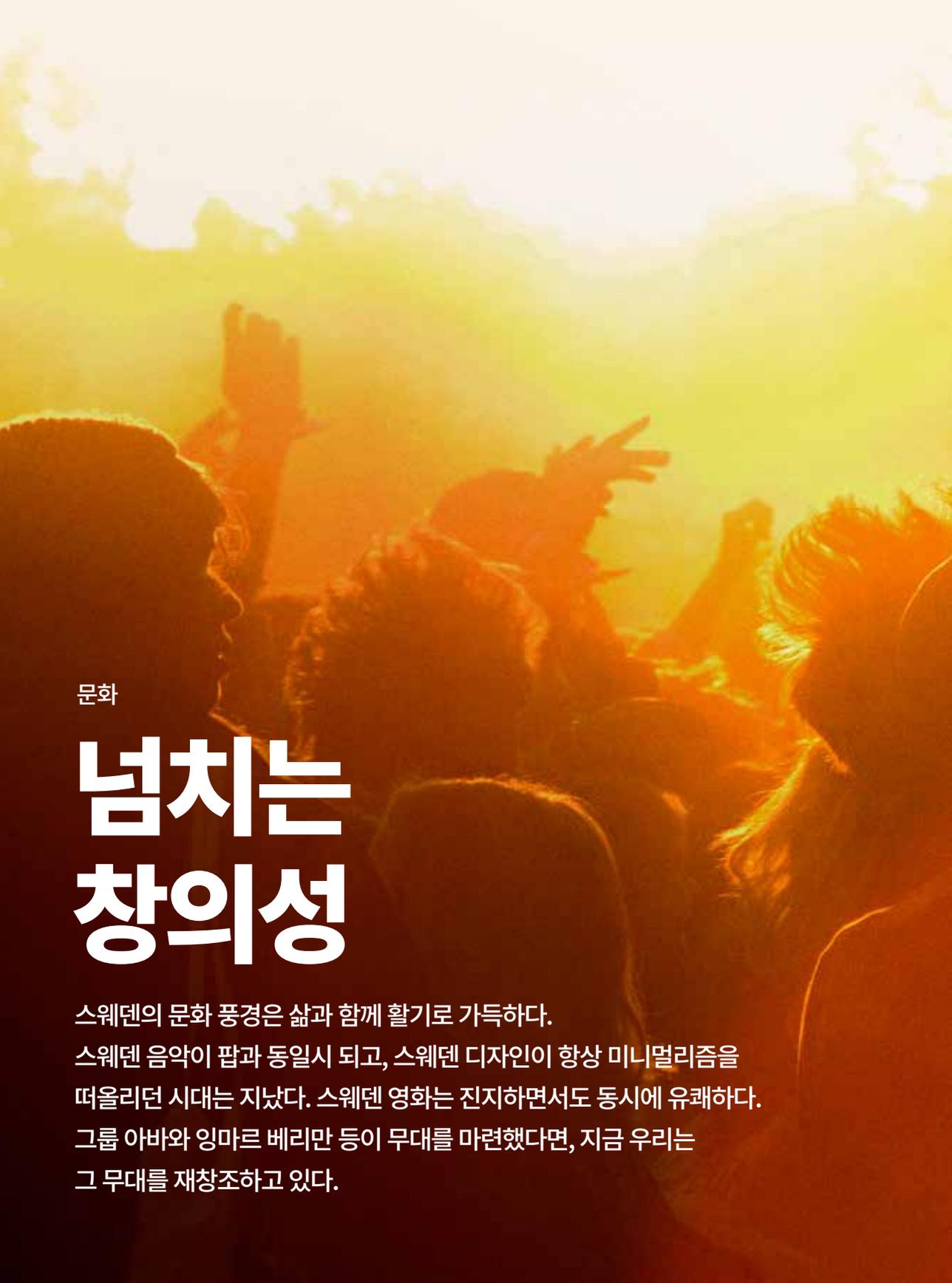
스웨덴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가 출범하며,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선언.

2018

성적동의를 법 발효.

2019

아동결혼금지법 개정안 발효로 스웨덴에서 미성년자의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게 됨.



문화

넘치는 창의성

스웨덴의 문화 풍경은 삶과 함께 활기로 가득하다.

스웨덴 음악이 팝과 동일시 되고, 스웨덴 디자인이 항상 미니멀리즘을 떠올리던 시대는 지났다. 스웨덴 영화는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유쾌하다.

그룹 아바와 잉마르 베리만 등이 무대를 마련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 무대를 재창조하고 있다.



음악

스웨덴이 국제 음악 무대에서 거둔 성공을 ‘스웨덴 음악의 기적’으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절대 기적이 아니다. 스웨덴은 견고한 음악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예술위원회라는 공공 기관을 통해 유망한 음악가들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들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쿨투르스콜란* ‘예술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배운다. 많은 성공한 음악가들이 예술학교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맥스 마틴이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마틴 산드베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히트곡 작곡가로 명성이 높다.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유명 가수의 1위 곡을 만든 장본인이다. 열 살 때 집 근처 예술학교에서 관악기를 배우며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십대 시절 밴드에서 활동할 땐, 시 의회가 빌려준 공간에서 리허설을 하기도 했다. 맥스 마틴은 이런 기회들이 자신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뛰어난 음악가, 작곡가, 프로듀서 배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보다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했다 -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Photo: Wikimedia

팝 아이콘 로빈의 ‘댄싱 온 마이 오운’은 전설적인 롤링스톤 매거진이 꼽은 2010년대 최고의 곡으로 선정되었다.

게임

마인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배틀필드는 모두 스웨덴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흥행대작이 된 비디오 게임이다. 모장, 킹, EA 다이스 등 스웨덴 게임 업체들의 성공의 중심에는 공학 지식 및 미적 디자인 감각을 고루 갖춘 재능 있고 창의적인 스웨덴의 인재들이 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축제인 드림핵은 게임 분야에서 스웨덴의 존재감을 확실히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은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 스웨덴에서 게임 산업의 영향력은 상당히.



Photo: David Thunander

텐스타 북음 성가대

스웨덴 사람들과 합창단

약 60만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합창단에 가입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뿌리깊은 합창 전통은 민요를 부르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하지 및 크리스마스와 관련이 깊다.



Photo: Jann Lipka/imagebank.sweden.se



Photo: Joel Rhodin

부각시키는데 일조했다. 1994년 LAN파티로 처음 시작된 후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온라인을 통해 수십만 명의 게임 팬을 끌어모으는 행사로 성장했다. 게임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스웨덴에서는 현역 e스포츠 선수가 400명 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금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패션

스웨덴 패션 업계의 지배적인 트렌드는 지속가능성이다. 모든 패션은 순환성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한다. 스웨덴 거대 패션 기업 H&M은 환경파괴 주범인 재래식 면화의 지속가능한 대체제를 찾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는 한편 다른 순환 이니셔티브도 진행하고 있다. 크고 작은 여러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동참하고 있다.

베아 스텐펠드는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선보인다. 위 사진은 디자이너의 오프 패피어 컬렉션 중 하나로, 종이를 이용해 만든 실험적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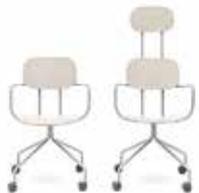
데님 브랜드 누디진은 고객들의 청바지를 수선하거나 고객이 더 이상 입지 않는 청바지를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레이브 리뷰는 업사이클링에 주목, 낮은 담요와 침대 린넨을 독특한 옷으로 재탄생시키며, 리메이크와 하이 패션을 접목했다.

디자인과 공예

스웨덴의 제품 및 가구 디자인에는, 환경 친화적 생산의 오랜 전통이 녹아 있다. 스웨덴 디자이너들은 목재, 양모, 린넨과 같은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재활용 소재 사용도 점차 늘러가고 있다. 생산자들 또한 이에 맞춰 생산 공정을 바꾸는 데 열린 자세를 보인다. 오늘날의 의식 높은 소비자들은 상품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한다.

메르타 모스-피에테르스트림과 브루노 마트손과 같은 개척자들은 종종 기능성과 미니멀리즘으로 정의되곤 하는 스웨덴의 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늘날의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는 프롬 어스 워드 러브, 모니카 피스테르 등의 스웨덴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료와 개념적 아이디어가 폭넓게 어우러지는 디자인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윤리가 서로 만난다.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와 소규모 공예 산업 간 협업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 스웨덴 디자인의 특징이다.

Photo: MDD



프롬 어스 워드 러브는 자사 뉴스쿨 컬렉션의 디자인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시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했다.

공연 예술

스웨덴 연극 무대에서는 오래된 고전과 현대적 표현이 만난다. 논란을 일으키고, 시대를 앞서 가던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작품들은 거듭 새롭게 재탄생하며 여전히 관객 곁에서 살아 숨쉰다. 스트린드베리의 후계자로 꼽히는 라르스 노렌은 노르딕 느와르의 대부로도 불린다. 아우구스트상 최종 후보자 명단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사라 스트리드스베리는 어둠과 고통, 유머를 아우르며, 무대 위에서 과감한 동시대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스웨덴의 어린이 연극은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어린이들을 진지한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어린이 연극에서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기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많이 다룬다. 스웨덴의 서커스 공연도 유명한데, 스웨덴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현대 서커스 기업인 시르크스 시르크외르가 대표적이다. 세계 발레 무대에서는 쿨베리 발레단이 스웨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스웨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장르의 댄스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더욱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Photo: Klara G



시르크스 시르크외르



Photo: Åsa Lundén/Moderna Museet. © Nathalie Djurberg och Hans Berg / Bildupphovsrätt 2020

예술

스웨덴에서 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예술 학교들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며, 공공 미술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오랜 전통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공공건물의 신규 건설, 재건축, 확장 시 예산의 1%는 예술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까지 정해 놓았다. 스웨덴 서부에 위치한 보로스는 도시의 공공장소를 꾸미는 색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국제 거리 예술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덕분에 벽화, 조각, 설치물 등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 예술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웨덴 예술가들도 있다. 나탈리 유르베리와 한스 베리는 스톡모션, 점토 인형, 가상 현실을 통해 풍자적으로 사회를 비판하며 기존 위계 구조와 사회 규범의 민낯을 폭로한다.

사진 속 영화 *살함*(2009)을 통해 나탈리 유르베리는 수치심, 욕망, 행복, 절망 등의 감정을 탐구한다. 한스 베리가 음악을 맡았다.

건축

현대 스웨덴 건축은 화이트 아키텍처, 빙고르드와 같은 대형 건축설계사무소가 장악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건축 인재들이 많이 있다. 스웨덴의 도시들이 확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목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2/3가 숲인 스웨덴에서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나무가 지속가능한 건축 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은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스웨덴 국립주택건축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보편적 접근성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 과정에서부터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각기 다른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빙고르드사가 설계한 쿨겐은 예테보리에 있는 샬머스공과대학 안에 위치해 있다. 학자, 기업인, 일반인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이다.



문학

스웨덴 문학은 헨닝 만켈, 리자 마르룬드, 카밀라 레크베리, 그리고 수백만 부를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그 라르손 등 유명한 범죄 소설 작가들이 많이 배출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지 모르지만, 다른 문학 장르들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저명한 산문 픽션 작가 페르 올로프 엔퀴비스트와 세스틴 에크만이 있고, 어린이 책 작가로는 바브로 린드그렌, 스벤 노르드크비스트, 그리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꼽을 수 있다. 201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도 빠뜨릴 수 없다.

스웨덴이 배출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한 명 더 있는데, 1909년에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셀마 라겔뢰프가 그 주인공이다. 앞으로도 스웨덴 문학계에서 천재적인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통해 매년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위대한 창작자들에게 명예를 부여한다.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은 한국의 백희나 작가가 수상했다.



Photo: Wikimedia

스웨덴의 대표적 문학상인 아우구스트상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성평등 영화

스웨덴영화진흥원은 2016년 칸국제영화제를 통해 ‘2020년까지 50대50: 영화 제작 시, 카메라 앞과 뒤에서 모두 성평등 달성’이라는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스웨덴의 이니셔티브들을 조명하는 가운데, 영화에서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스웨덴 영화 업계의 성평등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0년에 총 26개의 스웨덴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들의 제작에 참여한 여성 감독은 6명에 불과하다.

아만다 케르넬 감독의 영화 *차터* (2020)에서 주인공 앨리스가 양육권 분쟁 중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된다.



Photo: Sophia Olsson/Nordisk film

루벤 외스트룬드 감독의 *더 스퀘어* (2017)는 스웨덴 골드바게상 2개 부문을 석권하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포함한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Photo: TriART



Photo: iStockphoto

서커스 박사 학위?

2005년에 서커스가 스웨덴의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됨에 따라 서커스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서커스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영화

루벤 외스트룬드, 안나 오델, 토마스 알프레드손과 같은 스웨덴 영화 감독들은 잉마르 베리만과 그 동시대의 감독들만큼이나 인간의 조건을 묘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물론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고, 새로운 장르가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스웨덴 다큐멘터리 영화가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스웨덴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고 있다. 말릭 베젤룬은 미국에서는 잊혀진 지 오래된 가수를 찾는 과정을 그린 *서칭 포 슈가맨*(2012)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고, 엘렌 피스케는 스코틀랜드의 마초 문화를 조명하는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2019)으로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하지만 스웨덴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유머가 넘치는 코미디 영화야말로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

한 눈에 보는 창의적인 스웨덴



Photo: Robert Glover

클라라 리덴
'카흐바'



Photo: Magnus Reus

카밀라 레크베리
작가



Photo: Paul Hansen

알렉산더 에크만
안무가



Photo: Front Design

프론트 디자인
'블로 어웨이 베이스'



Photo: Mike Pont/WireImage

아버치
디제이 겸 프로듀서



프레드릭 배크만
"불안한 사람들"



Photo: Tim P. Whitby/Getty Images

알리시아 비칸데르
배우



Photo: Marie Ullmert

누디진



Photo: Michael Campanella/Getty Images

세람 페사하예, 드레스



Photo: Melker Dahlstrand

모장
'마인크래프트' 아바타



Photo: Steve Granitz/WireImage

루드비그 예란손
작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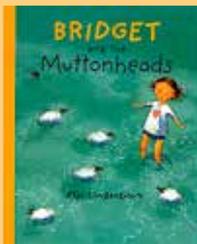
Photo: Johan Fowelin

마르게 아키텍테르
'야타 불나스'



Photo: Jonas Ekström/TT

닐스 란드그렌
재즈 음악가



피아 린덴바움
“브리짓과 바보들”



Photo: Gus Kaagel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



Photo: Svenskt Tenn



Photo: Karin Torriblom

리카르드 쇠데르베리
오페라 가수



Photo: John Artur

카지 오페이아
예술가, 케이팝 작곡가

요제프 프랑크, ‘채소 나무’



Photo: Lucy Nicholson / Reuters Feature / Scampix

레드윈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Illustration: Ingrid Vaher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뽀뽀 롱스타킹”



Photo: Wikimedia Commons

오페스
메탈 밴드



Photo: Eric Henriksson

자라 라르손
팝가수



Photo: Sebastian Vidovic/Wikimedia Commons

라르스 빌스크
‘니미스’



Photo: Eva Tedesjö/DN/TT

요나스 하센 케미리
작가, 극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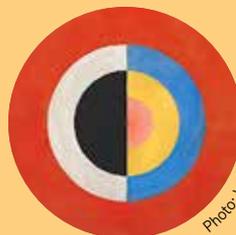


Photo: Wikimedia Commons

힐마 아프 클린트
‘Group IX/SUW, The Swan,
No. 17’ (크롭 사진)



Photo: Yera Andersson/vivianelairage

요엘 신나만
배우



Photo: Elis Eriksson/Länsmuseet Gävleborg

역사

현재의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강력한 군주 통치 아래 가난에 고통받고, 종교적 믿음 또는 정치적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라. 그러던 중 언론의 자유와 의무 교육이 도입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라. 이는 다름 아닌, 19세기 중반 스웨덴의 모습이다.

언론의 자유에 경의를!
 언론자유법은 '언론의 자유는 모든 스웨덴 시민이 가진 권리. 즉,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인쇄물을 통해 표현하고,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든 공문서를 출판하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명시한다.

19세기 말까지도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 국가 중 하나였다. 100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스웨덴은 빠른 산업화와 혁신을 이루며 잘 발달된 첨단 기술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에게 핀란드를 할양한 이후, 스웨덴에 평화가 찾아왔다. 스웨덴은 철광석·목재와 같은 유용한 천연 자원이 풍부했고, 효율적인 기반 시설을 잘 갖춰진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자원을 실어 날을 수 있었다. 1842년 도입된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는 무상 교육 제도 덕분에 일반적 교육 수준도 향상되었다. 세금에 기반한 복지 체제, 그리고 보다 최근 들어서는 광범위한 인터넷 보급도 한몫했다.

그런데 생략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스웨덴의 역사를 살펴보자.

빙하기 이후

약 10만 년 전 스웨덴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최초 이주민이 정착했다. 1만 년 전 무렵, 사람들이 돌로 만든 무기로 사냥을 하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석기 시대가 열렸다. 다음에 도래한 청동기 시대(기원전 1700년~기원전 500년) 초기에는 지금보다 기후가 더 따뜻했다. 철기 시대 말기(기원전 500년~기원후 1050년)에는 최초 문자인 룬 문자가 탄생했다.

바이킹

스웨덴을 여행하다 보면 나라 곳곳에서 스웨덴의 바이킹 조상들이 남긴 룬석을 발견할 수 있다. 룬석에는 트윗 길이 정도로 메시지가 적혀 있다. 전투와 용맹한 전사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전원생활 이야기를 담은 룬석이 더 많다.

역사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이킹족들이 '바이킹'을 '습격 또는 교역을 위한 탐험을 떠나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약 1천 년 전 바이킹족이 유럽 주변을 탐험하면서 스웨덴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이킹 시대(기원후800년~ 1050년)의 폭력적인 이미지 이면에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곳에서는 국제 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영위하며, 최초의 마을들이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독교와 토속 신앙이 섞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1008년경에는 올로프 세트코농이 스웨덴의 국왕으로서 최초로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Photo: Pinterest

스웨덴 배우 구스타프 스카스고르드는 캐나다 아일랜드 합작 TV 드라마 *바이킹스*에서 플로키 역으로 등장한다.



Photo: Carolina Mathilde Ranch/Hollands kulturhistoriska museum

권력과 자유

이후 수백 년 동안 군주들의 통치가 이어졌는데, 일부 권력욕이 강한 군주도 있었다. 14세기에 처음으로 핀란드를 지배하며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스웨덴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트해 연안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점령과 상실을 반복했다. 17세기 중반은 스웨덴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이자, 유럽의 강국으로 우뚝 선 시기였다.

1766년에는 세계 최초로 언론자유법을 도입하며 스웨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 1809년에는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어 국왕, 위원회, 의회가 권력을 나눠 갖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은 최초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투표권을 갖게 된 1921년에 비로소 마련되었다. ■

대규모 인구 이탈

1850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150만 명이 스웨덴을 떠났다. 대략 스웨덴 전체 남성의 20%와 여성의 15%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들은 빈곤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다. 인구 이탈이 최고조에 달했던 1887년에는 5만 명이상이 스웨덴을 떠났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북미 지역으로 이주했다.*

* 2011년에 5만1천명 이상이 스웨덴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며 기록이 갱신되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대부분이 다른 유럽 국가로 이주했고, 일부는 미국과 중국으로 향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0.5% 정도였다.

주요 정치인 및 군주

Photos: (portraits) Wikimedia Common



비르예르 알

얼 마셜 1248~1266: 여성, 가정, 교회, 법원을 보호하는 최초의 국법을 도입.



구스타프 바사

국왕 1523~1560 (총독, 1521~1523): 점령군에 맞선 저항 운동을 이끈 후 국왕으로 선출됨. 이후 개신교 종교 개혁을 단행.



악셀 옥센세르나

재상 1612~1654: 구스타프 2세 아돌프와 크리스티나 여왕을 보좌하며 스웨덴의 근대 행정 구조의 초석을 마련.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 1611~1632: 30년 전쟁에 참전하며 스웨덴을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킴. 전쟁터에서 사망.



크리스티나

여왕 1632~1654: 근대 스웨덴 왕국의 최초 여왕. 1654년 왕위에서 물러난 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에 정착.



칼 12세

국왕 1697~1718: 대북방 전쟁을 일으킨 스웨덴의 '전사 국왕'. 대북방 전쟁은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의 패배로 사실상 마무리.



구스타프 3세

국왕 1771~1792: '시어터 킹'으로 불림. 스톡홀름 최초의 오페라 극장을 세우고, 스웨덴한림원과 왕립음악원 설립. 가장 무도회에서 암살.

Photo: Ola Ericson/imagebank.sweden.se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실재

바사호는 '북방의 사자'로 불리던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의 군사적 야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은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발트해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을 갖길 원했다. 1628년, 바사호는 처녀 항해에서 불과 1.3km 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침몰했는데, 지나치게 높은 선체와 상부에 집중된 무게 중심이 침몰의 원인이었다. 바사호는 해저로 침몰한 지 333년 만에 육지로 인양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17세기 선박으로 인정받으며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사미족

스웨덴의 원주민

사미족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콜라 반도의 북쪽을 가로지르며 펼쳐진 사프미라는 땅에 거주하는 토착 원주민이다. 사미족은 스웨덴의 5개 공식 소수 민족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웨덴과 사미족의 관계는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미족 하면 보통 순록을 떠올린다. 하지만 스웨덴 사미족 중 순록 산업을 생계로 삼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관광, 고기잡이, 공예, 기타 무역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다. 최근 순록 사업이 순록치기의 순록 방목권과 땅 소유주의 벌목권을 둘러싼 정부와의 분쟁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미족은 어쩔 수없이 다른 수입원을 찾아나선 상황이다. 최근에는 풍력 발전과 순록 방목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유목민일까 아닐까?

소르셀레는 스웨덴에서 일인 당 순록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려진 마을이다. 이 곳에는 두 개의 사미 민속 마을 사미비에르가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순록 떼를 따라 노르웨이 국경에 맞닿은 산악 지역에서부터 발트해 연안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전통적 유목 생활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유목 생활이 흔치 않다. 대신 영구 주거지와 산 속 오두막집을 함께 두고 이동이 필요한 계절에만 산 속 오두막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사미 '마을'은 전통적인 마을이 아니다. 복합적 경제·행정 조합이자 구성원은 순록을 사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지리적 특수 지역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거주하지만, 사미족은 고유의 깃발을 갖고 있으며 2월 6일을 사미인의 날로 정해 기념한다.

사미어 단어 여섯 개

- (북부 사미어)
- 루와싸(Ruoitta) = 스웨덴
- 보아쥬(Boazu) = 순록
- 무아흐타(Muohta) = 눈
- 시흐켈(Sihkkel) = 자전거
- 오브다스쿠블라(Ovdaskuvla) = 유아 학교
- 디흐토(Dihtor) = 컴퓨터

사미 블러드

사미 블러드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사진 속 영화 장면은 14세 사미족 소녀인 엘리 마리아가 기숙학교에서 인종·생물학 신체 검사를 받는 모습이다. 주인공 소녀는 새로운 삶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가족도 문화도 모두 버려야 가능한 삶을.



Photo: Sophia Olsson/Nordisk film



Photo: Jonathan Neckstrand/TT

사미족은 순록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8계절로 구분한다. 9-10월 가을이면, 여름 표식 작업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새끼 순록에 표식을 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

2011년 스웨덴 대법원은 3개 사미 마을 란, 밥스텐, 움빈의 손을 들어주며, 특정 지역 땅에서 관습법에 따른 이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사미족은 해당 민간 소유지에서 순록을 방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일부 지역의 사미 마을은 어업권 및 사냥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긴 법정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에 스웨덴 대법원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기리야스 사미 마을에서 그들의 땅에서 어업을 관장하고 작은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주었다.

하지만 법원이 항상 사미족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1996년, 6년 간의 재판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사프미 전체를 뒤흔들었다. 헤르예달렌에 위치한 여러 사미 마을과 이드레 사미 마을이 순록 방목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항소해도 소용없었다. 또한 사미족은 수십년 동안 스웨덴 광산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사미족은 채굴 활동을 자신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자 사미족 땅에 대한 침범이라고 여긴다.

탄압과 화해

두 민족이 같은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 스웨덴 내 사미족은 스웨덴이라는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차별을 받아왔다. 비단 땅과 방목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다. 1920-30년대에는 사미족 남성, 여성, 아동들이 수치스러운 신체 검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미족 아동들은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유목민 학교’로 보내졌다. 기숙 학교 형태인 유목민 학교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현대적 편의 시설도 거의 없었다. 사미족의 종교, 문화, 언어에 대한 억압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2009년에 제정된 새로운 언어법은 사미족 어린이들이 사미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2010년 소수 집단과 소수 언어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사미족 문화와 언어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고, 더불어 사미족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1993년부터 자신들만의 의회 *사미틴에트*를 갖게 된 사미족은, 공개 토론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미족 의회의 권한은 사냥과 고기잡이, 순록 유목, 포식 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사미어와 사미 문화에 관련된 사안에 한해 인정된다. 중앙 정부의 지원 하에, *사미틴에트*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역사 전 과정에서 사미족이 겪은 침해와 학대를 밝히는 것이 이 절차의 목표이다. ■

* 검사를 실시한 인종생물학연구소는 1958년에 폐쇄되었다.



사미 학교

스웨덴은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미 학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 교육이고 스웨덴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미족 전통에 보다 중점을 둔 교육을 제공한다. 요크모크의 사미족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순록 사육, 전통 요리법, 수공예, 사미어 수업을 제공한다.

사미 문화

순록의 뿔과 같은 천연 재료와 정교한 장식이 특징인 *두오이*라고 불리는 수공예품이 유명하다. 사미족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미족 전통 노래 형식인 *요익*은 록, 팝, 힙합 등의 다른 음악 장르와 어우러져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익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막시다 메락, 소피아 안노크, 윤 헨릭 헬그렌 등이 있다. 사미의 스토리텔링 문화는 연극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데, 키루나에 있는 기론 사미 극장이 대표적이다.



'제가 자랄 때는 사미 원주민
권리 회복 투쟁에 대한 롤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 그런 롤모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시다 매락,
스웨덴-사미 음악가



지리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곳

스웨덴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과 끝없이 펼쳐지는 숲, 잠 없는 여름 밤의 나라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알레만스레텐, 즉 ‘공동접근권’을 기본 원칙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공동접근권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베리와 버섯을 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해하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자연의 영역에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손님일 뿐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자연을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스웨덴을 찾는 호기심 가득한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스웨덴은 서쪽으로는 산호초 서식지인 코스테르하베트 국립 공원부터 북쪽으로는 알파인

야생 세계를 간직한 사렐 국립 공원까지 전 국토의 1/10을 국립 공원 및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 공원은 한 때 스웨덴 전역을 가득 채웠던 자연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은 일부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자연이다. 한 지역을 국립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거나, 덥거나, 아니면 그 사이

스웨덴의 기후는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겨울이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여름이 따뜻하데, 멕시코 만에서 스웨덴까지 흘러와 극한 추위를 막아주는 대서양의 해류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 크다. 또한 서쪽의 스칸디나비아 산맥 *피알렌*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습한 바람을 막아준다.

스웨덴의 북쪽과 남쪽에서는 같은 계절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초여름이 되면 남쪽 지역 해변에서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는데 북쪽에서는 여전히 스키를 탄다. 일광의 길이 또한 남-북 지역간 차이가 크다. 북극권 위쪽 지역에서는 하지 전후로 몇 주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더 남쪽으로 가면 몇 시간 동안 어둠이 드리우는 느낌이 들지만, 저녁노을 정도의 어둠이다. 한편 한겨울 최북단에서는 약 한 달 동안 해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 아래서만 머무르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낮 시간에도 자연광은 지평선이나 수평선 아래서 맴도는 해에서 오는 빛이 전부이다. 밤에는 달빛이 눈에 반사되어 비치고, 가끔씩 북극광이 펼쳐지기도 한다.

11,600 km

스웨덴 해안선의 총 길이. 핀란드와의 국경에 위치한 스웨덴 북부 도시 하파란다에서 시작해 노르웨이와의 국경을 이루는 스웨덴 서부의 스트림스타드까지 이어진다.

Photo: David Sandström/imagebank.sveden.se



스테켄요크, 2020년 4월 25일

4월 말까지 스웨덴은 온 나라가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을까? 아니다. 4월 말은 남부 지역에서는 꽃이 만발하는 시기이다. 사진은 '야생 로드'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포장도로의 모습이다. 스웨덴 북부 지역인 스테켄요크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도로는 6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만 개방되는데, 사진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한때 스웨덴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철도는, 오늘날에는
전국을 잇는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hoto: Clive Tompsett/imagebank.sweden.se



Photo: Anna Hällens

알레만스레텐은 스웨덴 사람들이 숲과 자연을 누비며 블루베리 등 자연에서 나는 먹거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북극광을 찾아

북극광은 전설 같은 존재이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시각적 심포니인 북극광은 태양풍을 타고 온 전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북극광을 포착할 수 있을지 한번 북극광을 찾아 북쪽으로 가보자!

스웨덴 남쪽에 위치한 말뫼에서 출발해 보자. 말뫼는 스웨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치고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11월 초라 공기가 쌀쌀하고 땅은 가을 낙엽으로 덮여 있다. 이제 곧 기차는 스웨덴 최대의 야생 지역을 간직한 곳이자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그곳, 북쪽 끝 지방 라플란드를 향해 24시간 여정을 시작한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스웨덴의 농업 중심지를 지나며 추수가 끝난 농지와 황홀한 숲 풍경, 그리고 남쪽 지역에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들판을 감상할 수 있다. 기차가 전통적인 광산 지역인 베리슬라겐 쪽으로 선로를 바꾸기 전에 스웨덴에서 3번째로 큰 호수인 멜라렌 호수도 살짝 감상할 수 있다.

기차길은 이제 한동안 발트해 해안을 따라 이어지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하이코스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기차 여정은 뽀뽀한 삼림을 지나 원주민 사미족의 땅인 사프미에 위치한 광활하고 인구가 매우 적은 라플란드 지방까지



Photo: Asaf Kliger/imagebank.sweden.se

이어진다. 키루나 시를 벗어나면 야생 그대로의 자연이 끝없이 펼쳐지며 서쪽으로는 산들이 보인다. ‘다음 정거장은 아비스코입니다. 산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봉우리들과 함께 스웨덴에서 6번째로 큰 호수인 토네 트레스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겁 없는 순록이 뺨히 쳐다보는 눈길도 느껴질 것이다. 공동접근권 *알레만스레텐* 덕분에 텐트를 치고 머무를 수 있다. 기온이 섭씨* 0도 정도에 머무르는 야외에서 캠핑을 하는 동안, 4계절용 캠핑 도구의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땅에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다. 인적이 드문 이 곳에는, 눈이 만든 도화지 위에 동물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는다. 텃새와 다양한 사슴과 동물의 자국을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지역에는 곰, 늑대, 울버린, 스라소니 등 포식 동물도 거주하고 있다.

이른 저녁에 해가 지면, 다른 종류의 빛이 등장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녹색 빛의 리본이 나타나 마치 하늘에서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듯 춤춘다. 운이 좋으면 빨간색과 보라색, 그리고 그 사이의 여러 색을 띤 북극광을 만나기도 한다.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북극광을 직접 본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다. ■

북극광이라 불리는 오로라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어두운 겨울철에만 관찰할 수 있다.



Photo: Jorntan Ståhlhös

호수

스웨덴에는 규모가 1만 제곱미터(1헥타르) 이상인 호수만 해도 거의 10만 개에 달한다. 가장 큰 3대 호수는 베네른, 베테른, 멜라렌 호수이다.

*°C = 섭씨, 0°C = 32°F

스웨덴 빅 파이브

스웨덴 동물 중 무스가 가장 유명하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다양한 포식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불곰, 검독수리, 스라소니, 늑대, 울버린을 통틀어 '스웨덴 빅 파이브'라 지칭할만 하다.

Photo: Håkan Vargas/imagebank.sweden.se



Photo: Jerker Andersson/imagebank.sweden.se



섬

발트해에 위치한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 고틀란드에서는 석회암 돌기둥 *라우카르가* 놀라운 장관을 연출한다. 같은 발트해에 위치한 두 번째로 큰 섬 월란드는 해안에 더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약 40킬로미터에 걸쳐 생물다양성으로 잘 알려진 석회암 불모 평원 그레이트 알바가 펼쳐진다. 스웨덴에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스톡홀름 인근 및 서쪽 해안의 군도가 유명하다.

스포츠

스웨덴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스웨덴에서 스포츠는 축구 선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수영 선수 사라 세스트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스웨덴은 아마추어 운동 선수와 운동 애호가들의 나라이다.

스웨덴에서 스포츠는 일종의 사회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구 상에서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웨덴에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비영리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을 지닌다. 물론 주요 스포츠 클럽의 경우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게 유지한다는 스웨덴의 포부는 여전히 변함없다. 스웨덴 인구 중 스포츠 또는 아웃도어 활동 관련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1백만 명에 육박한다.

인기 스포츠

스웨덴 어디에 살든 지척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 사람들이 야외 스포츠를 선호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도시나 그 인근 지역에 야외 체육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스웨덴 사람들이 즐기는 상위 10개 운동 목록에도 야외를 선호하는 성향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인기 스포츠 10개

- | | |
|-----------|---------------------|
| 1. 걷기 | 6. 피트니스 수업 |
| 2. 체육관 운동 | 7. 축구 |
| 3. 달리기 | 8. 활강(다운힐) 스키/스노 보딩 |
| 4. 사이클링 | 9. 요가/명상 |
| 5. 수영 | 10. 하이킹 |

* 여기서 축구는 유럽식 풋볼을 의미함. 미국에서는 유럽식 풋볼을 축구로 지칭.

스웨덴에서 축구의 인기는 엄청나다. 매년 직접 축구를 하며 즐기는 사람이 1백만 명이 넘는데, 이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이다. 스타덤에 오른 스웨덴 축구 선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세계 정상권의 실력을 유지하는 스웨덴 여자 축구 국가 대표팀의 영향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하키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스포츠이다. 스웨덴 국내에도 최상위 하키 리그가 있지만 많은 젊은 하키 선수들이 해외, 특히 북미로 진출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올스타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스웨덴에서 아이스하키는 대표적인 남성 위주 스포츠에 속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Photo: iStockPhoto

일반인을 위한 스포츠

*프리스키스 앤 스베티스*는 스웨덴 국민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되는 스웨덴의 비영리 스포츠 협회이다. 1978년 창설된 이 협회는 현재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 인구의 5%가 넘는 수치이다.

10%

스웨덴에서 매해 꾸준히 축구를 즐기는 인구의 비율.



Photo: Sara De Basy /imagebank.sweden.se



Photo: Magnus Melin/Scandinax



Photo: Tommy Holm/TT



Photo: Henrik Trygg/Scandinav

겨울 스포츠

스웨덴은 겨울 스포츠의 천국이다. 스웨덴의 추운 날씨는 아이스 스케이트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들은 기회가 오자마자 짹째 얼어붙은 호수, 공공 아이스 스케이트장, 그리고 숲으로 쏟아져 나온다. 활강 스키 애호가들은 산속 오두막을 예약하기도 한다. 더 짜릿한 스포츠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카이트빙 스케이팅, 아이스 요팅, 아이스 클라이밍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스웨덴 전국 곳곳의 가정에서는 소파에 앉아 다양한 겨울 스포츠 경기 중계를 시청한다. 특히 스웨덴이 이길 확률이 높은 경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TV앞으로 끌어들이는다. ■

스웨덴 북부에는 스키리조트가 많이 포진해 있어, 겨울이 되면 남부 지역 사람들이 북부로 몰려든다.

스웨덴을 빛낸 스포츠 스타 12인



Photo: Gumar Lundmal/ICOP/SIPA/afk/afk

안니카 소렌스탐
골프



Photo: Wikimedia Common

아르만드 '몬도' 두플란티스
장대높이뛰기



Photo: Ethan Miller/Getty Images

바도우 잭
권투



Photo: Wikimedia Common

비외른 보리
테니스



Photo: Wikimedia Common

카롤리나 클뤼프트
7중 경기



Photo: Wikimedia Common

샤를로테 칼라
크로스컨트리 스키



Photo: Wikimedia Common

잉예마르 스텐마르크
활강 스키



Photo: Yuan Meng/VCC/Getty Images

얀-오베 발드네르
탁구



Photo: Wikimedia Common

코스바레 아슬라니
축구



Photo: Maja Susin/TIT

사라 세스트림
수영



Photo: Sven Alexandersson/UCS

토브 알렉산데르손
스키 오리엔티어링 및
오리엔티어링



Photo: Wikimedia Common

즐라탄 '이브라'
이브라히모비치
축구

1st

사라 세스트림은 수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스웨덴 여성이다.

86

잉예마르 스텐마르크는 알파인 월드컵 86승 기록을 세우며 회전 활강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전통

연례 기념일

스웨덴은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지만 세속성이 강한 국가이다. 스웨덴 사회의 형성에는 종교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국가의 다양한 전통에서 종교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기념일들은 대개 교회가 아닌 가족, 친구, 그리고 음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스

스웨덴에서는 세계 여러 다른 지역의 종교와 관습이 서로 만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때때로 스웨덴의 기념일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기념일로 추가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스웨덴의 오랜 이민 역사에서 크게 비롯되었다. 스웨덴 국민 5명 중 1명은 다른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새롭게 추가된 전통 중 일부 스웨덴 국민들이 기념하는 라마단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슬람의 성스러운 달인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데, 라마단이 여름철과 겹쳐 백야 현상이 생기면 무슬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스웨덴 사람들의 옛날 관습에 대한 애착은 스웨덴이 변화와 혁신의 나라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한 쪽 발을 역사에 뚫으로써 삶의 연속성과 소속감에 대한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또한 관습은 우리를 계절의 변화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기념일 중 국경일, 하지, 가재 파티, 러시아와 크리스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2

스웨덴 달력에 표시된 공식 공휴일의 수, 크리스마스 등 종교에 뿌리를 둔 공휴일과, 하지와 같이 토속 신앙에서 비롯된 공휴일이 공존한다.



셈라

연초에는 신년 전야 행사를 제외하면 기념할 만한 행사가 별로 없지만, 스웨덴에는 **셈라**가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스웨덴의 빵집과 카페의 진열장은 이 동그란 번으로 가득 채워진다. 셈라는 향신료 카다멈을 더해 만든 작은 밀 번 속에 아몬드 페이스트와 휘핑크림을 가득 넣어 만든다. 기독교인들이 금식 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즐기는 축제의 만찬 기간인 **펫티스다그**(참회의 화요일 또는 뚱뚱한 화요일)에 먹던 음식에서 셈라가 유래되었다. 지금 우리가 셈라를 먹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이다.

Photo: Ola Ericson/Imagebank.sweden.se



Photo: Wikimedia Common

구스타브 바사가 국왕으로
선출된 6월 6일은 스웨덴의
국경일이다. 공식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데
482년이 걸렸다.

국경일

6월 6일이 왔다. 오늘은 국경일이고, 쉬는 날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날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기념일이라 깃발을 흔드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경축 방법이 딱히 없다. 스웨덴 국경절에는 공공 집회를 열어야 할까, 그냥 쉬는 날을 즐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먹어야 할까?

스웨덴이 처음으로 6월 6일을 국경일로 기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 즈음이다. 하지만 이 날은 2005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6월 6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1523년 6월 6일은 근대 스웨덴의 창립자라고도 불리는 구스타브 바사가 왕으로 선출된 날이고, 1809년 6월 6일은 스웨덴이 새로운 헌법을 채택한 날이다. 신헌법은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상징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국경일은 개방성과 평등을 기념하는 날이다.

어떻게 하면 국경일을 가장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을지 아직도 고심 중이지만, 1891년에 개관한 스톡홀름의 야외 박물관인 스칸센에서 스웨덴 국왕과 왕비가 참석하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이 국경일 고정 행사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스웨덴 국왕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깃대 위에서는 스웨덴 국기가 휘날린다.



하지

어느새 2주가 흘렀다.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고 자연은 생동하는 에너지로 가득하다. 해가 거의 지지 않고, 북쪽에는 온종일 해가 떠 있다. 하지는 6월 21일 무렵 해가 가장 긴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의 스웨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6월 19일부터 25일 사이의 금요일을 하지날로 정해 기념한다.

하지 축제가 열리는 주말이 되면, 스웨덴 사람들은 너나없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행렬에 합류하여 친구와 가족을 만나러 전원으로 향한다. 하지를 도시에서 보내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파티장에 도착하면, 정원에는 벌써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장식까지 완벽하다. 바로 달려가서 청어와 감자가 차려진 점심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하지만 먼저 마쳐야 할 하지 의식들이 있다. 야생화와 잎을 따서, 그 꽃과 잎으로 하지 기둥에 옷을 입히듯 장식한 후, 기둥을 세운다. 남은 꽃으로는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쓴다.

하지 기둥은 하지 축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 기둥을 초록 나뭇잎과 화초로 장식한 뒤, 기둥을 세우고, 기둥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춤은 우스꽝스러울수록 더 좋다.

Photo: Doris Beiling



꿈 속에서 배우자 찾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설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각기 다른 일곱 종류의 꽃을 따다 하룻날 밤 베개 밑에 놓고 자면, 꿈 속에 미래의 배우자가 나온다고 한다. (아마 남성들도 이 마법을 쓰면 미래의 배우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점심을 먹을 차례이다. 하지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식탁을 안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다시 해가 비치면 또 바깥으로 나간다.

하지에는 청어와 함께 슈납스(전통주, 큐민향 종종 첨가)를 즐기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슈납스를 마실 때 꼭 불러야 하는 엉뚱하고 웃긴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대대손손 전해 내려져 오는 오랜 전통이다. 디저트로 딸기 케이크도 나온다. 다들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면, 춤이 시작된다!

어린이들과 몇몇 용기 있는 어른들이 하지 기둥 주위에 원을 만들고 전통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한 쪽 방향으로 돌며 추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 춤이다. 운이 좋은 경우 민속 음악가들과 춤 추는 군중이 함께 어울리는 하지 춤 행사가 근처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 열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 즈음엔 밤이 되어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기에 파티는 몇 시간이고 계속된다. 마침내 열린 안개가 춤을 추며 들판을 덮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자야 할 시간이 온 것일 수도 있다.

Photo: Anna Hållams/imagebank.sweden.se





가재 파티

8월이 왔다. 밤은 부드럽고, 식탁에는 가재가 쌓여 있다. 여기에 맥주와 슈납스까지 더해져야 장면이 제대로 완성된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가재이다. 형형색색의 종이 식탁보, 접시, 냅킨, 랜턴은 모두 가재로 장식되어 있다. 파티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모두 가재 턱반이를 두르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종이 모자를 쓴다.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오늘날에는 이 별미가 연중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음식이 되었지만, 아직도 스웨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재 시즌이 시작되던 8월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가재 향연을 즐긴다. 호수나 강에 가서 잡은 민물가재, 또는 바다에서 잡은 작은 바닷가재를 많은 양의 딜과 약간의 맥주를 넣고 함께 삶는다. 접시에 올라온 가재는, 열심히 껍질을 까서 쪽 빨아먹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

솔직히 말해서, 직접 가재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냉장칸이나 냉동칸에서 미리 삶아 포장해서 파는 가재를 구입한다.

루시아와 크리스마스



강림절의 두 번째 일요일,
두 번째 강림절 촛불을 켜다.
크리스마스도 한발짝 더
다가왔다.

시계를 빨리 돌려 12월로 가 보자. 운이 좋으면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긴 겨울 밤을 밝히는 눈이 내려, 특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선사할 것이다. 스웨덴의 크리스마스는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업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손수 만든 장식을 꺼내 달고, 촛불로 집을 장식하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다시 꺼내 스웨덴식 진저브레드 쿠키 *페파카코르*와 사프론 번 *루세볼라*를 굽는 시기이다.

크리스마스 전 4번의 일요일을 기념하는 강림절, 그 첫 번째 일요일부터 12월의 파티가 시작된다. 친구와 이웃끼리 서로 초대하여 달콤한 멀드 와인을 같이 마시고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다. 세속적이기로 유명한 스웨덴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시즌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전통만큼은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긴다.

쉿, 조용히! 불을 꺼야지! 12월 13일 루시아의 날이 되었다. 전국의 유아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작은 발들이 바빠 움직이고 흰색 긴 가운이 펄럭이는 가운데 촛불들이 깜빡거린다. 행진의 맨 앞에 있는 루시아는 머리에 전기 촛불 화관을 쓰고 허리에는 빨간 리본을 두르고 있다. 이어 루시아의 ‘하녀’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루시아의 뒤를 따른다.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의 도우미들, 흰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종이 원뿔 모자를 쓰고 손에는 끝에 별이 달린 막대기를 든 ‘스타 보이’, 그리고 진저브레드 맨도 행진에 동참한다.

부모들이 한껏 자랑스러운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은 날리 알려진 루시아와 크리스마스 전통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이 커 갈수록 루시아 배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스타 보이를 하겠다는 남자 아이를 찾는 것은 아이들이 한 살씩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여자옷 같은’ 긴 가운을 입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점차 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1일만 더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스웨덴에서 12월 24일은 산타클로스가 오는 중요한 날이다. 크리스마스 당일과 다음 날도 스웨덴 달력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능하면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쭉 쉬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긴 휴가를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청어 절임, 미트볼, 붉은 양배추, 크리스마스 햄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이 등장해서 입에 군침이 절로 돌게 만드는 스웨덴식 크리스마스 뷔페 스모가스보드를 보통 점심으로 차려 먹는다. 오후에는 같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동안 사람들은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달콤한 음식과 케이크를 먹는다. 그 때, 갑자기 문을 푹푹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산타클로스다! 이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들은 드디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어보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앗, 아니지. 고맙습니다. 산타클로스! ■



Photo: Carolina Romare

올보드는 스웨덴의 크리스마스 뷔페인데, 청어에서 햄까지 다양한 음식이 가득 차려진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는 산타클로스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분장한 모습에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놀라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사프론 향 가득한 루세카트만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된다.



전설의 루시아

성녀 루시아는 수많은 전설에 둘러싸인 존재이다. 시라쿠사의 성녀 루시아일까, 아니면 혹시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일까? 루시아라는 이름은 빛을 의미하는 룩스와 약마를 뜻하는 루시퍼, 이 두 단어 모두와 관련이 있다. 옛날에 사용하던 달력에 따르면 루시아의 밤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루시아의 밤을 동물들이 말을 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어둠 속에 숨어 도사리는 위험한 밤이라고 여겼다. 루시아의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뜯은 눈으로 버티는 사람도 많았다. 아직까지도 루시아의 날에 밤을 새우는 전통을 따르는 일부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데, 단지 밤새 파티를 즐기려는 핑계인 경우가 많다.



Photo: Carolina Romare/Imagebank.sweden.se



Photo: Magnus Carlsson/Imagebank.sweden.se

음식

식탁 위 대표 먹거리

스웨덴을 대표하는 요리들을 살펴보면 숲·호수·강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경우가 많다. 유명 셰프와 식도락을 즐기는 일반 미식가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전통 음식에 실험적 요소를 가미하고, 고유 레시피에 새로운 레시피를 접목하기도 한다. 집에서 시도해 볼 만한 스웨덴 요리 레시피 3개를 골라 보았다. 맛있게 드시길!







그라블락스(Gravlax)

딜에 절인 연어인 그라블락스는 스웨덴식 뷔페 스모가스보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라블락스의 풍미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다른 요리를 곁들이지 말고 얇게 썬 그라블락스만 몇 조각 음미해 보라. 전채 요리로도 딱이다. 연어에 딜 향을 더하고 소금과 설탕에 절여 만든 이 생선 요리는 머스터드 소스와 곁들여 내면 좋다.

재료 (6인분)

절인 연어:

신선한 연어 필레(껍질째) 750 g

설탕 85 g

소금 120 g

다진 딜 8 tbsp

굵게 갈은 흰 후추 1 tsp

소스:

스웨덴식 순한 머스터드 2 tbsp

디종 머스터드 1 tbsp

설탕 2 tbsp

레드와인 식초 1½ tbsp

소금, 흰 후추

오일(올리브유는 안 됨) 200 ml

다진 딜

만드는 과정

우선 그라블락스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시작하겠다. 만드는 데 이틀이나 걸리고, 여기에 날생선을 먹는 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리 준비에 앞서 연어를 얼리는 시간도 추가된다.

연어가 해동되면 비늘을 벗기고 작은 가시를 제거하되, 껍질은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둔다. 껍질에 몇 번 칼집을 내어 양념이 아래서부터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소금, 설탕, 후추를 섞어 연어 필레 위아래에 골고루 뿌리고, 동시에 딜도 넉넉히 뿌려준다. 연어 필레 위에 무게감 있는 도마를 올려놓은 상태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재운다. 그리고 나서 24~48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 놓고, 중간에 연어 필레를 몇 번 뒤집어 준다. 차가운 물에 연어를 행군다. 슬라이스로 얇게 썬다. 이 때 어두운 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 껍질에 너무 가깝게 붙어 썰지 않도록 유의한다.

소스는 머스터드, 설탕, 식초를 섞은 뒤 소금과 갓 간 후추로 간한다. 세계 저으면서 오일을 천천히 조금씩 부어준다. 마요네즈 정도의 점성이 생기면, 다진 딜을 섞어 저어준다.

단위 환산 및 약어

1 g = 1 gramme (그램)

100 g = 3.5 oz (온스)

1 kg = 2.2 lb (파운드)

1 dl = 2/5 cup (컵)

1 litre = 0.9 qt (쿼트)

1 tsp (테이블스푼) = 1/6 fl oz

(액량 온스) = 5 ml

1 tbsp = 3 tsp (티스푼)

= 1/2 fl oz

°C = 섭씨

0°C = 32°F

220°C = 428°F

*야드-파운드법



스웨덴에서 주식으로 즐겨 먹는 감자는 그라블락스와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

Photo: iStockPhoto

베지 ‘미트볼’

미트볼이 스웨덴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음식은 아니지만, 스웨덴식 미트볼 *켓볼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케아에서 파는 *켓볼라*가 다가 아니다. 미트볼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생 양파를 반죽에 섞기도 하고, 튀긴 양파를 곁들여 먹기도 하고, 그레이비와 함께 또는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스웨덴 요리사 구스타프 요한손은 자신의 푸드 블로그 *야블리트 고트* ('끝내주게 좋은')에 비건 미트볼 레시피를 공개했다.

재료 (4인분)

비건볼:

베지테리언 민스 400 g

귀리 크림 2 tbs

양파 1개

채소 스탁 1.5 tbs

중국 간장 1 tbs

곱게 간 올스파이스 ½ tbs

유제품 프리 ‘버터’, 튀김용으로 쓸 것이니

충분히 준비(완전 비건식의 경우)

소금, 검은 후추

크림 소스:

오트 크림 3 dl

채소 스탁 1.5 tbs

블랙커런트 잼 1 tbs (완전 비건식의

경우 젤라틴이 들어가지 않은 잼으로
준비)

중국 간장 1 tbs

말린 타임 1 tsp

말린 주니퍼베리 5개

소금, 검은 후추

만드는 과정

민스를 실온에서 약 45분 정도 해동한다. 양파를 곱게 다진다. 다진 양파와 함께 다른 재료들도 모두 민스에 넣고 손으로 섞는다. 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대략 지름 2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든다. 뜨거운 팬에 넣고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띠며 단단해질 때까지 튀긴다.

다 익은 비건볼은 팬에서 꺼내고, 아직 뜨거운 그 팬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스를 만든다. 모든 소스 재료를 팬에 붓고 2~3분 동안 끓인다. 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미트볼’을 소스에 넣어 따뜻하게 데운 후, 삶은 감자와 링곤베리 잼을 곁들여 낸다.



Photo: Ted Logart

링곤베리

살구버섯이 숲에서 나는 황금이라면 링곤베리는 숲의 루비이다. 이 조그맣고 새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나는 링곤베리가 숲에 널려 있고 누구나 마음껏 딸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링곤베리나 링곤베리 잼이 미트볼 요리에만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고기 미트볼 재료 (4~6인분)

다진 소고기/돼지고기 섞어서 500 g	곱게 다져 볶은 양파 1개
우유 250 ml	소금
흰 빵가루, 우유에 적셔 쓸 것 75 g	흰 후추
달걀 1개	곱게 간 올스파이스

재료를 모두 섞고, 버터를 넉넉히 두른 팬에서 튀긴다.





Photo: Elliot Elliot/imagebank.swe.dn.se

시나몬 번

스웨덴 사람들은 단 것을 좋아한다.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 사람 한 명이 매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케이크와 페이스트리의 양은 시나몬 번, *카넬볼라*로 따지면 3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스웨덴에서 누군가의 집에 *피카* 초대를 받았다면, 커피와 함께 시나몬 번, 쿠키, 또는 케이크 등도 같이 대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콤한 먹거리가 없는 *피카*는 없다. 당신이 직접 스웨덴의 시나몬 별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레시피를 소개한다.

재료 (25개 분량)

반죽:	필링:
이스트 35 g	버터 100 g
설탕 100 g	설탕 50 g
우유 300 ml	시나몬 2 tbsp
달걀 1개	
버터 120 g	클레이즈:
소금 1 tsp	달걀 1개
갈아 놓은 카다멈 1 tbsp	물 2 tbsp
밀가루 750 g	펠슈거

만드는 과정

잘게 부순 이스트를 담은 볼에 우유 몇 스푼을 넣고 저으며 섞는다. 버터를 녹이고 우유를 부어 넣는다. 나머지 재료도 모두 넣고, 반죽기를 사용해 10~15분 동안 치댄다. 반죽이 부풀어오르도록 덮개를 씌운 상태로 실온에 30분 둔다.

두께 3밀리미터, 너비 30센티미터 정도로 반죽을 편다. 실온 버터를 위에 펴 바른다. 설탕과 시나몬을 섞어서 반죽 위에 골고루 뿌린다. 반죽을 길게 돌돌 말아 롤 모양으로 만든 후 25조각으로 자른다. 자른 단면이 위를 향하게 하여 종이 틀에 넣는다. 베이킹시트 위에 반죽이 담긴 종이 틀을 놓고 타월을 덮은 뒤 60분 정도 또는 반죽이 두 배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달걀을 물에 풀어 달걀물을 만들고, 만들어진 달걀물을 붓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번에 바르고 위에 펄슈거를 뿌린다. 섭씨 22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5~6분간 굽는다. 식힘망에서 식힌다. ■



커피에 미치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평균 1인당 10킬로그램 이상의 커피를 소비한다. 1인당 소비 기준, 세계 최고의 커피 소비국 중 하나이다. 커피에 시나몬 번을 곁들이면, 그곳이 바로 *피카* 천국이다.



Photo: Kristin Lindell/imagebank.sweden.se

언어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나라

스웨덴에서는 북게르만어인 스웨덴어를 사용한다.

스웨덴어는 핀란드에서도 2개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의 대학에서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스웨덴어를 배운다.

본

래 스웨덴어는 바이킹 시대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사용하던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했다. 노르웨이인, 덴마크인, 스웨덴인, 그리고 일부 아이슬란드인들은 서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뿌리가 전혀 다른 우랄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스웨덴어를 읽다 보면 낯익은 몇몇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는 스웨덴어 단어 중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도 표기는 스웨덴어 철자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스웨덴어로 스베리예이다.

Å Ä Ö

스웨덴어에는 기본 라틴 알파벳 26자에 Å, Ä, Ö의 3개 문자가 추가된다. Å는 ‘ㅅ’로, Ä는 ‘계’로, Ö는 ‘ㅅ’로 발음된다.

언어법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의 법적인 공식 언어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정부 및 대부분 교육 시스템 안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던 중 2000년에 5개의 소수민족 언어가 공식화 되고, 이어 2009년 제정된 신규 언어법에서 스웨덴어를 스웨덴의 주요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새로 제정된 언어법에 따르면 안전 유의사항 및 제품 정보는 반드시 스웨덴어로 작성·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스웨덴어를 사용해야 한다

공식 소수민족 언어

스웨덴이 지정한 5개 공식 소수민족 언어인 핀란드어, 메안키엘리어, 롬어, 사미어, 이디쉬어는 언어법이 장려하고 보호한다. 공식 소수민족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해당 언어를 배울 권리를 갖는다. 스웨덴에서 공식 소수민족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방언이 아닌 언어라야 하며, 두 번째로 최소 3대 연속 또는 100년 이상 끊임없이 사용되어 온 언어라야 한다.

이 외에도 스웨덴 언어법에는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약 150여개에 이르는 모든 모국어가 포함된다. 언어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국어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어느 곳에서도 모국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스웨덴 교육법은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학교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스웨덴어 표현 몇 가지

Fika [피:카]

커피를 마시며 갖는 휴식 시간 (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하는 시간)

Glögg [글뢰그]

스웨덴식 멀드 와인

Hej! [헤이]

안녕하세요!

Hej då! [헤이도]

안녕, 잘 가! (헤어질 때)

Lagom [라:곰]

딱 알맞은 - 너무 모자라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은

Nja (nej + ja) [냐]

“예(nej, 네이)”와 “아니요(ja, 야)”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의미

Ombudsman [옴부즈만]

옴부즈만

Pâtår [포:토르]

두 번째 커피 한 잔

Sambo [삼:보]

파트너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 (“동거”를 의미하는 스웨덴어 단어 ‘samboende(삼보엔데)’의 줄임말)

Smörgåsbord

[스모르:고스보:드]
스모가스보드(스웨덴식 뷔페)

Tack! [타크]

고맙습니다/정중한 부탁 또는 요청의 표현

Särbo [세:르보]

연인 관계 파트너가 있지만, 그 파트너와 같이 살지는 않는 사람

Talar du engelska?

[탈:라 두 엥:엘스카]
영어 할 줄 아시나요?

Ursäkta mig! [울썩:타 메이]

실례합니다

Varsågod! [바소구:드]

여기 있습니다/부탁합니다/천만에요

Älg [엘:리]

무스 (유라시안 엘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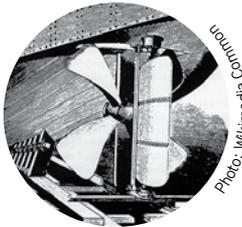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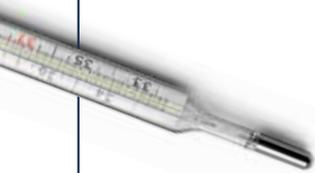
스웨덴 혁신 연대표

근대 스웨덴으로의 성장은 혁신적인 환경 덕분에 가능했다.
혁신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해 보았다.



1742

안데르스 셸시우스가 현재 섭씨로 사용되는 온도 척도에 대한 논문을 출판.



1837

온 에릭슨이 발명한 프로펠러를 장착한 최초의 선박 건조.

1876

라르스 마그누스와 힐다 에릭슨이 세계적인 ICT업체 에릭슨의 전신이 될 전화기 수리점 시작.



1892

요한 페테르 요한슨이 조정 가능 스페너 (명키 스페너) 발명.



1748

에바 에케블라드 데 라 가르디가 감자로 전분과 보드카를 만드는 법을 개발, 스웨덴 왕립과학원 최초 여성 회원으로 임명 됨.



1867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내마이트로 특허 취득.

1891

요나스 벤스트림이 전기-전자 회사 ASEA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될 3상 교류 송전 방식에 대한 특허 취득. ABB로 사명 변경.

1844

구스타브 에릭 파슈가 안전성상으로 특허 획득.



Photos: iStock, or as otherwise stated



1760s

1차 산업혁명 시작

1869

미국 대륙횡단열차 완공

1869

DNA 발견

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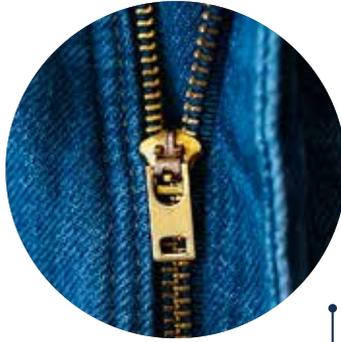
벨 전화기 특허 획득

1879

에디슨 전구 발명

1895

윈트겐 X선 발견



1907

스벤 빙퀴스트가 자기 정렬 볼 베어링을 발명하고 SKF사 설립.



1940

난나 스바르츠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약 사라조피린의 판매 시작.



1913

기드온 슌드벵이 개발한 지퍼가 특허 등록.

1947

산업용 공구 및 장비 제조업체인 아틀라스콧코의 스웨덴식 암반 시추 혁신 공법 론칭.



Photo: Atlas Copco

1911

스카니아와 바비스가 스웨덴 최초 버스 생산 (두 회사는 추후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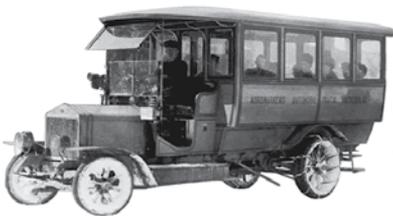


Photo: Scania

1944

에릭 발렌베르크가 4면체 모양의 일회용 우유 포장 용기 테트라팩 개발.



1937

항공기 제조업체 사브 창립.



Photo: Wikimedia Common

1950

칼 군나르 앙스트롬이 최초의 의료용 인공호흡기 소개.

1908

포드 최초 대량생산 자동차 출시

1916

시베리아 횡단 철도 완공

1927

린드버그 대서양 횡단 비행

1927

최초 유성영화 개봉

1928

플레밍 페니실린 발견

1938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발견



1953

스웨덴의 잉에 에들러와 독일의 칼 헬무트 헤르츠가 최초로 초음파 심전도 검사(ECG) 실시.

1958

룬 엘름크비스트가 최초의 이식형 심박 조율기를 만들고, 오케 세닝이 첫 이식 수술 집도.



1978

아이나 위팔크가 워커라고 불리는 보행 보조기의 스케치를 처음으로 선보임. 2년후 생산 시작.

1992

글로벌 이동 통신 시스템 출범. 외스텐 매키탈로가 이 시스템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Photo: Ericsson



Photo: IKEA

1956

이케아의 조립식 플랫팩 가구 최초 출시.

Photo: BabyBjörn



1959

볼보 3점식 안전벨트 출시.

Photo: Volvo



1979

퀘양 치료제 로섹 특허 취득.

1997

일렉트로룩스가 로봇 진공 청소기 원형을 공개. 스웨덴, 세계 최초의 교통 사고 사망자수 감소 전략인 '비전 제로' 발표.

Photo: Electrolux

1973

릴레모어와 본 야콥슨이 베이비본 아기띠를 세상에 처음 선보임.



1957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1960 최초 경구 피임약 승인

1964 일본 고속철도 개통

1969 달 착륙

1989 월드와이드웹 (WWW) 탄생

1998 구글 검색엔진 등장



1998

에릭슨이 무선 블루투스 기술 개발 완료.



2003

스카이프 설립.
스웨덴의 니콜라스 젠스트림과 덴마크의 야누스 프리스가 공동 설립하고, 에스토니아의 아티 헤인라, 프리트 카세살루, 안 탈린이 공동 개발함.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



2006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설립.

2015

스웨덴 최초 원격 진료 앱 크리의 원격 화상 진료 서비스 시작.



Photo: KFY

2000

아스트라제네카의 심비코트 터부헬러가 천식 치료제로 승인.



2005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위한 새로운 결제 솔루션 발명. 이후 클라나로 명명.

자전거 '에어백' 헬멧—회빙딩 아이디어 탄생.



Picture: Mojang

2019

아인라이드가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 시험 운행 시작.



Picture: Einride

2009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 탄생.



Photo: Hövding

다음 페이지: 노벨과 노벨상

2004 페이스북 출범

2008 암호화폐 비트코인 발명

2010 3D 프린터로 인공 장기 출력

2011 음성비서 탑재 스마트폰 최초 출시

2019 에볼라 백신 승인

2020 코로나19 발견에 인공지능(AI) 활용



Photo: Alexander Mahmoud/Imagebank sweden.se

알프레드 노벨과 노벨상

스웨덴의 혁신가, 창업가이자 기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1833-96)은 유언장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을 '전해에 인류를 위해 가장 공헌한 사람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는데 쓰이도록 했다. 이로써 노벨은 그의 발명품 중 하나인 다이내마이트가 아닌 노벨상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물리, 화학, 생리학, 문학, 그리고 평화를 위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수여된다.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은 노벨의 유언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68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며 제정되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사망일에 맞춰 매년 12월 10일에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다. 노벨의 뜻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에서 수여하는데, 1814년에서 1905년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한 나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이 결정이 어느 정도 일리 있게 느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노벨은 전 세계 20개 국가에 90개 공장을 설립하고 355개의 특허를 등록하며 부를 축적했다. 이 중 다이내마이트에 대한 특허는 1860년대에 취득했다. 노벨이 유산으로 남긴 자금의 원금은 3천1백만 크로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늘어나,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크로나의 상금이 수여된다.



Photo: Ola Ericson*

노벨상은 노벨의 유언장에 따라 인류를 위해 공헌한 전세계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벨상 메달은 노벨재단의 등록상표이다.

10

매년 12월 10일 스톡홀름과 오슬로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노벨상 연회는 1천명이 넘는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다.

6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총 6개 분야에 수여된다.

© 스웨덴대외홍보처, 2021

글: 엠마 로베르손

편집: 리카르드 라게르베리

사진 편집: 모나 루스

그래픽 디자인: 스펙트라디자인

종이: 네오스타스노우화이트

한글 번역: 유경나

한글본 인쇄: 락커뮤니케이션, 2021

본 간행물은 스웨덴대외홍보처(SI)에서 제작했다.

SI는 스웨덴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과 신뢰를 증진하고자 문화·교육·과학·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 및 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과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SI는 전세계 스웨덴대사관 및 영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스웨덴대외홍보처

Box 9

SE-121 21 Johanneshov

+46 (0)8-453 78 00

si@si.se

s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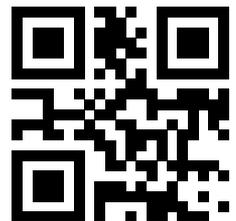
sweden.se

sharingsweden.se

본 간행물에 대한 의견 및 문의: order@si.se

SI. Swedish
Institute

QR코드 스캔하면
sweden.se 로 연결됩니다!



스웨덴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면?

맞게 본 것이다. 다소 상반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과 친구를 위한 시간은 꼭 남겨둔다. 세계 성평등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 문제를 겪고있다. 기후 변화에 대해 오래 전부터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한 십대 소녀가 등장하고 나서야 전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도 평화 속에 피어난 혁신을 동력 삼아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미래를 향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후로도 우리는 부모휴가제를 도입하고,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현금을 없앴다.

이 책은 한겨울부터 한여름까지, 지속가능성부터 슈퍼스타까지, 정치체제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웨덴 - 평범하지 않은 나라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